

Ways of reducing the perception gap between rural residents and urban-to-rural migrants: focus on the area of Hongseong-gun

Gabone Han¹, Minsu Yeo^{2*}, Seungjee Hong²

¹Institute of Livestock Environmental Management, Daejeon 34065, Korea

²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34, Korea

*Corresponding author: ch62minsu@naver.com

Abstract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migrants from urban to rural areas in Korea, Population inflow policies have helped increase the number of urban-to-rural migrants which has eased the labor shortage in rural areas.. But, there are new problems in rural areas caused by the “perception gap in regard to harmony, awareness, pride and opportunity to meet” between the urban-to-rural migrants and the original res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harmony between the urban-to-rural migrants and residents.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70 people living in Hongseong-gun in Chungcheongnam-do with an aim to come up with proposals for policies that can help resolve these social problems in the mutual understanding of urban-to-rural migrants and original residents. An ordered logit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perception gap between the urban-to-rural migrants and the rural residents. The result of the survey showed that most of the urban-to-rural migrants believed that the increase in urban-to-rural migrants did not bring harmony to rural areas because of the perception gap. Based on these results, we concluded that the following three policy alternatives would be needed: first, development of urban-to-rural migrant education programs for relatively young men; second, a policy supporting various forms of community gathering in a rural society; third, diversification of urban-to-rural migrant education programs such as communication program and conflict management program, etc.

Keywords: ordered logit model, perception gap, urban-to-rural migrants

Introduction

최근 농촌지역의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지역의 인력부족, 생산성 하락 등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로 농촌지역의 경쟁력이 많이 저하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고령화 해결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 정책 중 하나가 젊은 인력의 농촌지역으로의 유입, 즉 귀농·귀촌 정책의 시행이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단계별 지원 및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유입



OPEN ACCESS

Citation: Han G, Yeo M, Hong S. 2017. Ways of reducing the perception gap between rural residents and urban-to-rural migrants: focus on the area of Hongseong-gun.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4:440-450.

DOI: <https://doi.org/10.7744/kjoas.20170046>

Editor: Hyunsuk Ki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Received: August 1, 2017

Revised: August 21, 2017

Accepted: September 7, 2017

Copyright: © 2017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정책과 농업인력의 육성에 관련한 예산을 35억에서 364억 원으로 늘리는 등(Seo and Kim, 2016) 농촌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책 시행 결과 2016년 귀농인구는 약 1만 3천명으로 2015년 1만 2천명 보다 약 7.5% 많았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홍성군의 경우 2016년 귀농인은 109명으로 전체 귀농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지만, 귀농인구 통계가 작성된 2013년부터 귀농인이 연평균 22.4% 증가하고 있어, 그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지역 중 하나이다(Table 1).

Table 1. Number of urban-to-rural migrants by region (Unit: Person).

Classification	2013	2014	2015	2016
Total	10,312	10,904	12,114	13,019
Busan Metropolitan City	22	30	31	27
Daegu Metropolitan City	56	70	72	92
Incheon Metropolitan City	82	88	104	125
Ulsan Metropolitan City	69	82	84	88
Sejong City	73	69	64	84
Gyeonggi-do	882	898	1,074	1,298
Gangwon-do	845	809	1,006	1,070
Chungcheongbuk-do	835	897	940	1,063
Chungcheongnam-do	1,123	1,226	1,390	1,438
Hongseong-gun	60	77	84	109
Jeollabuk-do	1,140	1,170	1,181	1,273
Jeollanam-do	1,689	1,773	1,894	1,937
Gyeongsangbuk-do	1,957	2,134	2,249	2,352
Gyeongsangnam-do	1,289	1,361	1,631	1,661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50	297	391	511

Member of household was excluded from data.

Source: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A02003&conn_path=13 on 1 July 2017).

이렇듯 귀농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한편 농촌지역으로 유입된 인구가 여러가지 이유로 농촌지역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도시지역으로 역귀농·귀촌을 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례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MAFRA (2017)에 따르면 2012 - 2015년 귀농·귀촌 1,000가구 중 역귀농을 했거나 계획 중인 가구는 15.4%로 조사되었다. 역귀농 이유를 살펴보면 ‘생활하기에 소득이 부족해서’가 3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농업노동에 적응하기 힘들어서’가 18.0%, ‘가족의 농촌생활에 대한 불만’ 15.3%, ‘생활환경이 불편해서’ 12.0%, ‘심리적 어려움’ 8.7%,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8.0%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귀농·귀촌 인구의 역귀농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금’, ‘귀농·귀촌 일자리 창업 박람회 개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귀농인의 집’, ‘선도농가 실습지원’, ‘2030세대 취창업 지원 교육’, ‘세제 지원’ 등으로 대부분의 정책들이 소득, 노동, 생활환경 분야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역귀농의 이유 중 하나인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일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귀농·귀촌 화합 프로그램’, ‘집들이 지원’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정책의 대상자인 귀농·귀촌인은 귀농·귀촌 정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귀농·귀촌인의 정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은 ‘토착민들과의 화합’이라고 여기고 있다(KREI, 2017).

귀농인이 느끼는 원주민에 대한 ‘텃세’와 원주민이 느끼는 도시민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이기심’ 등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귀농·귀촌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역효과가 많아짐에 따라 정착률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분쟁으로 인한 또 다른 농촌지역의 사회문제까지 야기되고 있다. 생활습관이나 문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이한 집단간의 만남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이 필요하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 입장과 생각을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농촌지역의 사회적 문제 및 갈등 해결을 통해 정착률을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한 대안 중 하나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최근 들어 귀농·귀촌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홍성지역의 귀농인 및 원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간의 인식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인구의 농촌지역 유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현 귀농·귀촌 정책 이외에 귀농·귀촌인의 화합을 통해 농촌지역의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및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귀농·귀촌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농촌으로의 인구유입 방안과 귀농으로 인한 농촌의 경제적 변화(Kim, 1998)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간 화합,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등 귀농으로 인한 농촌의 사회적 변화와 관련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Lee, 2008; Hwang et al., 2011; Cho and Cho, 2013; Park, 2016; Ma, 2016).

Lee (2008)은 순서형 로짓 모형을 통해 경북지역 귀농인의 지역만족도와 지역주민과의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귀농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귀농준비기간이 길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역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 및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wang et al. (2011)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귀농·귀촌인 121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참여활동 실태 및 생활만족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준비기간, 지역사회 활동 참여 동기, 다른 활동과의 병행 행태, 계속적 활동의 향 등이 농촌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 and Cho (2013)은 귀농·귀촌인의 정주현황 및 커뮤니티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제언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마을과 전원주거단지 마을로의 귀농·귀촌인을 구분하여 정주현황 및 커뮤니티 실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Park (2016)은 농촌주민 9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촌주민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귀농·귀촌인에 대한 농촌주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Ma (2016)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역귀농 현상에 대하여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역귀농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간 화합,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등의 분석을 통해 향후 귀농·귀촌정책 수립에 있어 의미 있는 정책제언을 하였지만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Park (2016)의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인식차이를 조사하였지만 귀농·귀촌인과 일반농촌주민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귀농·귀촌인뿐만 아니라 원주민을 모두 포함하여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간 화합,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대해 연구하였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Materials and Methods에서는 표본의 설계 및 개황,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를 제시한다. Estimation Models에서는 본 논문에 분석방법으로 사용된 순서형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Result and Discussion에서는 종속변수별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Conclusion에서는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표본의 설계 및 개황

홍성지역의 귀농인과 원주민의 지역 활동에 있어 상호간의 인식차이 파악을 통한 정책수요 파악을 위해 귀농인

과 원주민 70명(귀농인 34명, 원주민 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조사원이 응답자를 직접 면담하는 일대일 면접을 시행하였으며, 표본은 군집 표본 추출 방법을 통해 추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1일간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기초 통계는 다음과 같다. 평균 연령은 58.3세(귀농인 57.4세, 원주민 59.2세)고, 남성은 70%(귀농인 79.4%, 원주민 61.1%), 여성은 30%(귀농인 20.6%, 원주민 38.9%)이다. 자녀 수는 2명이 37.1%(귀농인 41.2%, 원주민 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3명 27.1%(귀농인 20.6%, 원주민 33.3%), 1명 20.0%(귀

Table 2.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lassification	Migrants		Residents		Total		
	Frequency (person)	Ratio (%)	Frequency (person)	Ratio (%)	Frequency (person)	Ratio (%)	
Age (average)	57.4		59.2		58.3		
Sex	Male	27	79.4	22	61.1	49	70.0
	Female	7	20.6	14	38.9	21	30.0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12	36.4	14	40.0	26	38.2
	High school	10	30.3	14	40.0	24	35.3
	University	9	27.3	6	17.1	15	22.1
	Graduate school	2	6.1	1	2.9	3	4.4
Farming experience (year)	Below 1	5	14.7	1	2.8	6	8.6
	1 - 2	2	5.9	-	0.0	2	2.9
	3 - 4	5	14.7	3	8.3	8	11.4
	4 - 9	3	8.8	1	2.8	4	5.7
	10 - 14	4	11.8	1	2.8	5	7.1
	15 - 19	1	2.9	3	8.3	4	5.7
	20 - 24	3	8.8	5	13.9	8	11.4
	25 - 29	2	5.9	6	16.7	8	11.4
Over 30	9	26.5	16	44.4	25	35.7	
Monthly household income (million won)	Below 100	17	54.8	7	19.4	24	35.8
	100 - 199	5	16.1	11	30.6	16	23.9
	200 - 299	3	9.7	9	25.0	12	17.9
	300 - 399	1	3.2	6	16.7	7	10.4
	400 - 499	2	6.5	1	2.8	3	4.5
	Over 500	3	9.7	2	5.6	5	7.5
Farm size (pyeong)	0	3	8.8	2	5.6	5	7.1
	Below 300	4	11.8	2	5.6	6	8.6
	300 - 999	6	17.6	4	11.1	10	14.3
	1,000 - 1,999	4	11.8	3	8.3	7	10.0
	2,000 - 4,999	9	26.5	10	27.8	19	27.1
	5,000 - 9,999	5	14.7	12	33.3	17	24.3
Children (person)	Over 10,000	3	8.8	3	8.3	6	8.6
	0	2	5.9	2	5.6	4	5.7
	1	7	20.6	7	19.4	14	20.0
	2	14	41.2	12	33.3	26	37.1
	3	7	20.6	12	33.3	19	27.1
Over 4	4	11.8	3	8.3	7	10.0	

농인 20.6%, 원주민 1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 38.2%(귀농인 36.4%, 원주민 40.0%), 고등학교 35.3%(귀농인 30.3%, 원주민 40.0%), 대학교 22.1%(귀농인 27.3%, 원주민 17.1%), 대학원 이상 4.4%(귀농인 6.1%, 원주민 2.9%) 순으로 나타났다. 영농 경력은 30년 이상이 3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0 - 24년, 25 - 29년, 3 - 4년이 각각 11.4%, 1년 미만 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농 경력의 경우 귀농인과 원주민 모두 30년 이상이 각각 26.5%, 4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귀농인의 경우 1년 미만, 3 - 4년이 각각 14.7%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고, 원주민은 25 - 29년이 16.7%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월 농업 소득은 100만 원 이하가 3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100 - 199만 원, 200 - 299만 원, 300 - 399만 원이 각각 23.9%, 17.9%, 10.4%의 순서로 나타났다. 월 농업 소득은 귀농인의 경우 100만 원 이하가 5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원주민의 경우 100 - 199만 원이 3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자가 및 임차면적을 포함한 농지 면적은 2,000 - 4,999평이 27.1%로 가장 많았고, 5,000 - 9,999평이 24.3%, 300 - 999평이 14.3% 등의 순을 이루었다. 농지 면적은 원주민의 경우 5,000 - 9,999평이 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귀농인은 2,000 - 4,999평이 2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Table 2).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총 4개이며, 농촌지역의 인식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관련된 선행연구인 MAFRA (2011)를 참고하였다. 선정된 종속변수는 ‘귀농인과 원주민의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귀농인 증가로 지역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다’, ‘귀농인 증가로 지역주민의 자부심이 증가하였다’, ‘귀농인 증가로 지역주민 간 모임 기회가 증가하였다’ 등 4가지 변수이다. 설명변수로는 연령, 교육수준, 영농경력, 화합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 성별, 결혼여부, 귀농여부, 영농승계 여부 등 인구 및 경제적 특성, 농업과 관련된 개별 특성 등 총 8가지 변수를 선정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 리커트 5점척도로 설정하여 설명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Table 3).

Table 3. Definition of variables.

Classification		Definition
Dependent Variable	Harmony	1 = Strongly disagree, 2 = Disagree, 3 = Common, 4 = Agree, 5 = Strongly agree
	Awareness	
	Pride	
	Opportunity to meet	
Independent Variable	Age	Age
	Education level	1 = Middle school, 2 = High school, 3 = University, 4 = Graduate school
	Farming experience	1 = Under 1 year, 2 = 1 to under 3 year, 3 = 3 to under 5, 4 = 5 to under 10, 5 = 10 to under 15, 6 = 15 to under 20, 7 = 20 to under 25, 8 = 25 to under 30, 9 = more 30
	Satisfaction in Rural program	1 = Strongly dissatisfaction, 2 = Dissatisfaction, 3 = Common, 4 = Satisfaction, 5 = Strongly satisfaction
	Sex	0 = Female, 1 = Male
	Marital status	0 = Single, 1 = Married
	Urban-to-migrants or not	0 = Rural residents, 1 = Urban-to-rural migrants
	Succession of agricultural business status	0 = Non-succeed, 1 = Succeed

Estimation Models

순서형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

본 논문에서는 개별 농업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농업과 관련된 개별 특성이 귀농인과 원주민 간 인식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순서형 로짓 모형을 사용하였다. 순서형 로짓 모형은 위계(Hierarchy)가 없고, 단 순한 순서(Ordered)의 성격을 지닌 리커트 척도형 응답의 설문조사문항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확률이라는 개념을 통해 회귀식으로 분석할 때 널리 사용되고 있다(Lee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의 응답을 5단계로 범주화 하였으며, 범주화된 기준 y^* 와 관찰 가능한 응답 y 의 관계는 다음 식(1)과 같다.

$$\begin{aligned}
 y &= 1 \text{ if } y^* \leq \mu_1 (= 0) \\
 &= 2 \text{ if } \mu_1 < y^* \leq \mu_2 \\
 &= 3 \text{ if } \mu_2 < y^* \leq \mu_3 \\
 &\vdots \\
 &= J \text{ if } \mu_{J-1} < y^*
 \end{aligned} \tag{1}$$

식(1)에서 y^* 는 관찰이 불가능한(Unobservable) 응답 변수이며, 관찰 가능한 응답 변수 y 의 선택기준을 제공한다. $\mu_1 \dots \mu_{j-1}$ 은 y^* 의 경계값(Threshold)이며, 이는 총 관찰 가능한 응답 J 개에 대하여 j 를 선택가능하게 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응답자가 $y = 2$ 를 선택하였다면 응답자는 μ_1 과 μ_2 사이의 y^* 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순서형 로짓 모형은 확률의 관점에서 종속변수가 연속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종속변수 y 가 j 를 선택할 확률 $\text{Prob}(y = j)$ 은 다음의 식(2)와 같다.

$$\begin{aligned}
 \text{Prob}(y = j) &= \text{Prob}(\mu_{j-1} < y^* = \sum_{k=1}^K \beta_k \chi_k + \epsilon \leq \mu_j) \\
 &= \text{Prob}(\mu_{j-1} - \sum_{k=1}^K \beta_k \chi_k < \epsilon \leq \mu_j - \sum_{k=1}^K \beta_k \chi_k) \\
 &= F(\mu_j - \sum_{k=1}^K \beta_k \chi_k) - F(\mu_{j-1} - \sum_{k=1}^K \beta_k \chi_k)
 \end{aligned} \tag{2}$$

순서형 로짓 모형은 누적로짓분포함수의 역함수를 사용한다. 이에 식(2)를 통해 누적로짓분포함수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Prob}(y = j) &= F(\mu_j - \sum_{k=1}^K \beta_k \chi_k) - F(\mu_{j-1} - \sum_{k=1}^K \beta_k \chi_k) \\
 \text{Prob}(y = j-1) &= F(\mu_{j-1} - \sum_{k=1}^K \beta_k \chi_k) - F(\mu_{j-2} - \sum_{k=1}^K \beta_k \chi_k) \\
 &\vdots \\
 \text{Prob}(y = 2) &= F(\mu_2 - \sum_{k=1}^K \beta_k \chi_k) - F(-\sum_{k=1}^K \beta_k \chi_k) \\
 \text{Prob}(y = 1) &= F(-\sum_{k=1}^K \beta_k \chi_k) \\
 \text{Prob}(y \leq j) &= F(\mu_j - \sum_{k=1}^K \beta_k \chi_k) = L(\mu_j - \sum_{k=1}^K \beta_k \chi_k) = \frac{e^{\mu_j - \sum_{k=1}^K \beta_k \chi_k}}{1 + e^{\mu_j - \sum_{k=1}^K \beta_k \chi_k}}
 \end{aligned} \tag{3}$$

도출된 누적로짓분포함수에서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식(4)와 같은 순서형 로짓 모형이 도출된다.

$$Prob(y \leq j|x) = \log \left[\frac{P(y \leq j|x)}{1 - P(y \leq j|x)} \right] = \mu_j - \sum_{k=1}^* \beta_k \chi_k \quad \text{단, } j = 1, 2, \dots, J-1 \quad (4)$$

한편 순서형 로짓 모형에서 한계효과를 추정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계수초정의 해석과 큰 차이를 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없어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다.

Results and Discussion

귀농인 증가로 인한 귀농인과 원주민의 인식차이와 관련된 종속변수에 대하여 순서형 로짓 모형 분석 결과 대부분의 분석결과에서 귀농인 증가로 인해 귀농인이 느끼는 ‘인식’은 원주민과 달리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귀농인이 상대적으로 원주민보다 화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자세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귀농인과 원주민의 화합

첫번째 종속변수인 ‘귀농인과 원주민의 화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순서형 로짓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카이제곱근(Chi-square)값은 16.259로 전체 독립변수에 대하여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연령, 교육수준, 화합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귀농여부 등이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교육수준, 화합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등의 변수에서 양(+)의 계수가 도출되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화합교육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을수록 귀농인과 원주민의 화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귀농여부 변수의 경우 음(-)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귀농인 일수록 화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4).

Table 4. Regression results about harmony.

Classification	$\hat{\beta}$	S.E.
Age	0.109**	0.056
Education	1.316**	0.626
Farming experience	-0.092	0.245
Satisfaction in rural programs	1.488***	0.496
Sex	0.892	0.885
Marital status	3.984	3.074
Urban-to-migrants or not	-2.042*	1.166
Succession of agricultural business status	1.912	1.274
μ_2	-1.758	
μ_3	-3.217	
μ_4	-6.310	
-2 Log likelihood	72.396	
Chi-Square	16.259**	

*, **, ***Deno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10%, 5%, 1%, respectively.

지역 이미지 제고

두번째 종속변수인 ‘귀농인의 증가로 인한 지역 이미지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카이제곱근 값은 19.723으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변수별로는 연령, 결혼여부, 농업승계여부, 교육수준, 화합교육 프로그램 만족도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변수들의 계수값은 모두 양(+)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연령·교육수준·화합교육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을 한 사람일수록, 부모로부터 농업을 승계 받은 사람일수록 귀농인 증가로 지역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Table 5).

Table 5. Regression results about awareness.

Classification	$\hat{\beta}$	S.E.
Age	0.097*	0.054
Education	1.885***	0.682
Farming experience	0.226	0.258
Satisfaction in rural programs	1.554***	0.559
Sex	1.345	0.946
Marital status	5.145*	3.145
Urban-to-migrants or not	-1.628	1.177
Succession of agricultural business status	2.451*	1.341
μ_2		-3.267
μ_3		-6.162
μ_4		-8.812
-2 Log likelihood		61.745
Chi-Square		19.723**

*, **, ***Deno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10%, 5%, 1%, respectively.

지역주민의 자부심 제고

세번째 종속변수인 ‘귀농인 증가로 인한 지역주민의 자부심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카이제곱근 값은 25.088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별로 살펴보면 연령, 교육수준, 화합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결혼여부, 농업승계여부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의 계수값은 모두 양(+)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연령·교육수준·화합교육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을 한 사람일수록, 부모로부터 농업을 승계 받은 사람일수록 귀농인 증가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자부심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6).

모임 기회의 증가

마지막 종속변수인 ‘귀농인 증가로 인한 지역주민 간 모임 기회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카이제곱근 값은 25.547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변수별로는 연령, 교육수준, 결혼여부, 부모승계여부, 화합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귀농여부가 통계적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변수 중 귀농여부를 제외한 변수들은 계수값이 양(+)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연령·교육수준·화합교육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을 한 사람일수록, 부모로부터 농업을 승계 받은 사람일수록 귀농인 증가로 인해 지역주민 간 모임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귀농인 일수록 지역주민 간의 모임의 기회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Table 6. Regression results about pride.

Classification	$\hat{\beta}$	S.E.
Age	0.161***	0.061
Education	2.327***	0.751
Farming experience	0.246	0.272
Satisfaction in rural programs	2.262***	0.681
Sex	0.863	0.974
Marital status	6.729**	3.348
Urban-to-migrants or not	-1.82	1.263
Succession of agricultural business status	3.657**	1.478
μ_2		-3.738
μ_3		-7.247
μ_4		-10.048
-2 Log likelihood		55.061
Chi-Square		25.088***

** , ***Deno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5%, 1%, respectively.

Table 7. Regression results about opportunity to meet.

Classification	$\hat{\beta}$	S.E.
Age	0.155**	0.064
Education	1.803**	0.735
Farming experience	0.348	0.302
Satisfaction in rural programs	2.444***	0.674
Sex	0.543	0.940
Marital status	8.507**	4.191
Urban-to-migrants or not	-4.057***	1.549
Succession of agricultural business status	4.162**	1.642
μ_2		-2.385
μ_3		-5.095
μ_4		-10.256
-2 Log likelihood		52.668
Chi-Square		25.547***

** , ***Deno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5%, 1%, respectively.

정책 제언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의 귀농인 그룹에서 화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농촌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모임은 상호간의 갈등을 대화로서 가장 잘 해결하고 농촌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며 인식의 차이를 좁힐 수 있다. 분석결과 귀농·귀촌인 그룹에서 모임의 기회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인을 포함시켜 운영되는 모임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귀농·귀촌인이 포함된 모임기회가 많은 지역에는 정부사업 지원시 인센

티브를 부여하는 등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만남기회를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귀농·귀촌인 중심으로 소득 및 영농교육이 대부분인 교육프로그램을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모두에게 커뮤니케이션, 갈등관리 교육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상호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Conclusion

최근 도시로부터 농촌으로의 귀농·귀촌이 늘어나면서 농촌지역의 인구공동화 현상 및 노동력 부족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 나가고 있다. 정부 역시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생활방식, 가치관 등의 차이로 인하여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의 갈등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최근 귀농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충남 홍성지역의 귀농·귀촌인 및 원주민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순서형 로짓 모형을 통해 사회경제적 특성별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역귀농·역귀촌을 막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순서형 로짓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일부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귀농인의 대부분은 ‘인식의 차이’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인과 원주민의 화합’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연령, 교육수준, 화합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변수가 양(+)의 계수, 귀농 변수가 음(-)의 계수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역 이미지 제고’와 관련된 문항에서는 연령, 결혼, 영농 승계여부, 교육수준, 화합교육 프로그램 만족도가 양(+)의 계수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자부심 제고’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연령, 교육수준, 화합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결혼여부, 영농 승계여부 변수가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임기회의 증가’와 관련된 문항에서는 연령, 교육수준, 결혼여부, 화합교육 프로그램 만족도가 양(+)의 영향, 귀농여부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연령층의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다양한 형태의 모임 지원 및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모임에 인센티브 부여’, ‘커뮤니케이션, 갈등관리 교육 등 새로운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의 도입’ 등의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본 논문은 귀농·귀촌인 및 원주민을 모두 포함하여 이들의 화합, 커뮤니케이션, 만족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홍성군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짐에 따라 분석 결과를 우리나라 전지역으로 확대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전체 귀농·귀촌인을 모집단으로 한 후속연구를 통해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Cho YJ, Cho EJ. 2013. An analysis on the actual state of the settlement and the community of people returning to rural area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9:191-202. [in Korean]
- Hwang JI, Choi YJ, Hyeon MC, Yoon SD. 2011. Rural migrants' community participation and relationship with rural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18:729-764. [in Korean]
- Kim JH. 1998. A study on the socio-economic effects of u-turn migration in rural area.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25:138-147. [in Korean]
- KOSIS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Accessed in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A02003&conn_path=I3 on 1 July 2017. [in Korean]
- KREI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7. The effects of urban-to-rural migrants on rural area. 88pp. [in Korean]

- Lee SH. 2008. Analysis of satisfaction of returns to the farm with the region society and regional dwellers in the Gyeongbuk province.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Policy* 35:551-565. [in Korean]
- Lee SW, Min SH, Park JY, Yoon SD. 2005. The practice on logit & probit model. Parkyoungsa, Seoul, Korea. [in Korean]
- Ma SJ, Nam KC, Choi YJ. 2016. Urban-to-rural migrants' intention of returning to urban area and its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Rural Sociological Society* 26:37-63. [in Korean]
- MAFR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1. A study on settlement of urban-to-rural migrants and development plans for rural community. 233pp. [in Korean]
- MAFR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7. 2016 Survey on urban-to-rural. [in Korean]
- Park DS. 2016. Analysis on the factors influencing rural residents' attitude toward urban-to-rural migrants. *Journal of Rural Sociological Society* 26:7-35. [in Korean]
- Seo JW, Kim YH. 2016.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rming capability of farmers and farm household income.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3:127-135. [in Korean]